

한·중 전문 통번역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 부산외대 GSIT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

김아영(부산외국어대학교)

오성탁(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통번역대학원(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이하 GSIT)은 1979년 한국의외대에 최초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지역과 대학으로 확산¹⁾하며 한국의 전문 통번역 인력을 길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GSIT는 “주로 국제회의통역사와 비문학 번역사 등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거의 유지되고 있다.” (왕금금과 김아영, 2023, pp. 5-6)

이로 인해 석사과정으로서 GSIT의 교육은 일반적인 대학원과 여러 가지 차이를 보여준다. 우선 실기 중심의 입학시험을 실시한다. 그러나 시험 대상인 통번역 능력을 가르치는 학부 과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원자 다수가 시험 준비를 위해 시중 학원 등 기관에서 선행 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학별 입학시험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나 기초 통번역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졸업 요건 역시 학점, 성

1) 2023년 현재 한중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은 총 8곳(한국의외대, 이화여대, 서울외대, 중앙대, 부산외대, 제주대, 계명대, 단국대)이다. (왕금금과 김아영, 2023, pp. 5-6)

적, 논문보다 통번역 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종합시험이 가장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교육과정을 보면 GSIT는 취득 학점이 상대적으로 많다. 2개 언어 과정의 경우 학교별로 40~65학점(2시수 단위)에 달할 정도다.²⁾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도 다른데, 입학 후 단계별로 교과목을 개설, 수강하기 때문에 소속 단위보다 입학 시기별로 학습 공동체가 형성된다.

수업을 보면 GSIT는 실무에 초점을 맞춘 교육 목표와 수업 방식을 적용한다. 간단한 입문 또는 이론 소개 후 뉴스, 기사, 영상, 문건 등 자료를 대상으로 한 번역 실습 또는 통역 시연과 평가 외에도 과제와 자습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전통’은 GSIT 설립 50년을 앞둔 오늘날에도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교재는 GSIT 수업이 가장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 중 하나다. 정이붕(2018, p. 22)에 따르면 언어 교육에서 교재는 교사, 학습자와 함께 3대 요소로 손꼽히며 잘 조직된 교재는 교육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GSIT의 교수자나 학습자는 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하여 함채원(2016, p. 48)은 “전문번역교육의 코스 디자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실러버스 디자인 및 그에 따른 교재 개발 즉 텍스트 선정이 개별 교수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언어 교육에 비해 선택이나 구성 면에서 자유도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진실로와 곽은주(2016, pp. 69~70)는 “개별 교수자의 재량과 자유도가 높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의된 논의 결과가 부족하다는 의미”이자 “개별 교수자들이 각자 현장에서 노력하여 얻어낸 유의미한 결과물들이 공론화,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수업을 위해서는 개별 교수자들이 쉽게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형태, 즉 출간된 형태의 질 높은 번역 교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가운데 연구자는 GSIT 학습자를 위한 교재의 필요성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GSIT 한중과정은 비수도권 지역 소재 전문 통번역 교육 석사과정으로, 앞서 정리한 GSIT 교육의 특징들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입학생들의 선행 학습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

2) 2025년 8월 현재 계명대와 단국대는 홈페이지에서 시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수도권 소재 GSIT들과 다르다. 이에 본교 GSIT 한중과정은 입학시험 중 일부 항목을 언어 능력 중심으로 변형하며 합격자들은 통번역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통번역 학습에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학습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 소재 GSIT보다 더 세심한 교수학습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중국인 입학생은 선행 학습 없이 외국어 환경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나아가 학습용 교재가 다수 개발되어 있는 중국 내 전문 통번역 교육과정 통번역전문석사학위(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MTI) 과정(김아영 등, 2021)과 달리 한국의 GSIT는 교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선행 학습 경험이 없는 본교 GSIT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재 개발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알아보는 예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언어 및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해 중국인 학습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앞서 한·중 번역 교재 개발 과정을 다룬 정이봉(2018, pp. 25~27)에 따르면 특수목적 언어교육용 교재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i) 본교 GSIT 한중과정의 중국인 학습자들은 교재를 필요로 하는가?
- (ii) 필요로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교재를 필요로 하는가?

(ii) 중 ‘언제’란 학습 과정 중 교재의 도입 시기를 의미하며 ‘어디서’란 학습 상황에서 교재의 용도, ‘어떤’이란 교재의 발행 매체와 발행 방식, 텍스트의 작성 시기와 전환 방향)을 뜻한다.

기존의 요구조사는 양적 방법론인 설문조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고의 조사 대상인 중국인 학습자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이에 더하여 설문조사는 응답의 이유 등을 좀 더 깊게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질적 방법론인 인터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 3) 텍스트의 전환 방향이란 통번역사가 구사하는 언어쌍 중 A언어로부터 B언어로의 전환인지 아니면 B언어로부터 A언어로의 전환인지를 말한다. 통번역 및 그 교육에서 전환 방향은 교과목에까지 반영되는 비중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을 토대로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일별한 후 3장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이를 통해 가깝게는 선행 학습 경험이 없는 본교 GSIT 한중과정 중국인 학습자들의 전문 통번역 학습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확인하고, 멀게는 향후 전문 통번역 교수학습에 관한 객관적 합의를 도출하며 교육 현장의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공문화,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함채원(2016, p. 48)이 언급한 것처럼 GSIT에서 교재는 주로 개별 텍스트를 가리킨다. 그러나 배두본(1999, pp. 3~5)은 교재의 의미를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정의한 바 있다. 첫째, 광의의 교재는 교수와 학습에 사용되는 모든 입력을 지칭하며 시각, 청각, 시청각 등 모든 감각 기관을 통해 교수와 학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유무형의 모든 입력물을 의미한다.

둘째, 협의의 교재는 학습용으로 직접 입력이 되는 자료나 교수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어 교수와 학습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교재, 프로그램, 상황, 과제 활동은 물론 교육 자료에 해당되는 보조 교구, 교육 매체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 외에 개인 학습용으로 제작되거나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학습서, 참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학원이나 개인 교습용으로 제작된 시청각 자료 등이 포함된다.

가장 좁은 의미의 교재는 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습자들이 학습하면서 직접 사용하는 교육 자료를 말한다.

이상의 정의에 따르면 GSIT 교수학습에서 쓰이는 개별 텍스트는 가장 좁지만 교재(teaching material)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재의 실제 지시 대상은 그보다 더 협소해 보인다. 예를 들어 진실로와 곽은주(2016)는 학부의 번역수업에 사용되는 수업자료의 유형을 조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교수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유인물에 비해 출간서적(textbook)의 활용 비율이 훨씬 낮았으며 출간서적을 교재로 택한 경우에도 유인물을 준비

하여 병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교재는 출간 서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유형의 교재가 잘 쓰이지 않은 것은 GSIT뿐 아니라 학부 통번역 수업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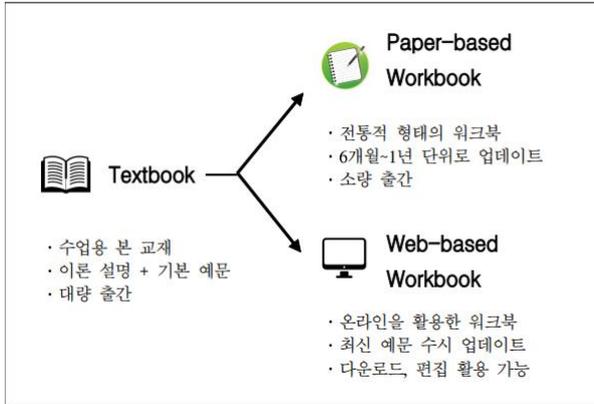
학부 교육에서 교재의 공백은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통역 교재가 대표적이었는데, 김종희(2010), 최문선(2013) 등에 따르면 학부 통역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은 한결같이 학부 과정에 맞는 교재의 공백을 지적했으며 김선아(2020, p. 6)는 한·중 통역 교육에 맞는 출간서적이 10권이 채 안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연구자가 시중 주요 서점과 본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25년 8월 기준) 한·중 통번역 학습용 출간서적은 18권에 불과했으며 모두 2018년 이전에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서 지적한 바대로 GSIT 교육에서 교재의 공백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진실로와 곽은주(2016, pp. 69~70)에 따르면 교재 편찬은 번역학의 타 분야에 비해 지금까지 연구가 덜 활성화된 편인데, 국내 번역학 학계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한 편이다.

사실 통번역 교재 개발과 연구가 미진한 것은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이다. 정철자(2015, pp. 271~272)의 지적처럼 역동적인 통번역 현장의 특성과 의뢰자나 업무 관련 기밀 유지 문제로 교육자료 수집이 어렵고 자료를 수집하여 수업에 적용할 시점에는 이미 그 자료가 시의성을 상실하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정(2015, pp. 57~58)은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용 한중 번역 교재 개발 방향을 논하면서 출간 교재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해져 교수에 의지해야만 이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출간서적 형식의 교재는 불필요한가? 진실로와 곽은주(2016, p. 70)에 따르면 교수자들이 출간서적을 선택한 이유는 실습 예문이 비교적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고 이론 설명이 실습 예문과 함께 제시되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통번역 교수학습용 자료들은 시의성, 실제성을 충족하는 동시에 이론 설명과 실습 예문도 필요한데, 출간서적이 후자를 해결하여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개발할 전문 통번역 교재는 내용의 시의성, 실제성과 이론 설명-실습 예문 체계라는 두 측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진실로와 곽은주(2016)는 <그림 1>과 같이 발행 방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진실로와 곽은주(2016, p. 81)의 번역 교재 모델



<그림 1>에 따르면 본 교재는 학부 수준에 필요한 만큼의 번역 이론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시의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예문을 충분히 제공하고 워크북에서는 학습자들이 본 교재에서 배운 이론을 활용하여 직접 번역 실습을 해 볼 수 있도록 본 교재의 구성에 따라 최대한 다양한 장르의 최신 예문들을 실습 텍스트로 실는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진실로와 곽은주(2016)의 모델은 발행 방식을 통해 출간서적 교재의 시의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이를 채택하고자 한다. 다만 진실로와 곽은주(2016)의 모델은 학부 번역 수업을 위한 것이며 제안 후 10년이 흐르는 사이 대학 수업의 풍경은 급격하게 전자화되었다. 또한 번역 교재뿐 아니라 통역 교재 모델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정이 요구되는데, 요구 분석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요구 분석(needs analysis)이란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 상태(what it is)와 희망하는 상태(what should be) 간의 차이를 구하고 문제점을 찾아 최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과정이다. (김진수 등, 2008, p. 53) 허친슨과 워터스(Hutchinson & Waters, 1987, pp. 59~63)는 요구 분석을 목표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학습 요구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목표요구는 학습자가 목표 상황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정해 주는 것이며

... 학습 요구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습자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찾아내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학습자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정이봉, 2018에서 인용됨)

정이봉(2018, pp. 64~65)은 이를 바탕으로 한·중 번역 교재 개발을 위한 조사 항목을 목표요구(목표언어는 왜 필요한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학습요구(학습자의 기본정보는 어떠한가? 왜 이 과목을 이수하는가? 어떻게 학습하는가? 교육과정과 교수진은 어떠한가?)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들 항목은 교재 사용을 이미 전제로 하여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인 반면, 본고의 문제 의식은 전문 통번역 교재의 도입 자체에 있다. 이에 외국어 대신 교재 자체를 대상으로 1장의 연구 질문과 같이 조사 항목을 작성하고 진실로와 곽은주(2016) 교재 모델의 핵심 요소인 발행 방식과 발행 매체를 포함시켰다. 대신 교재에 수록될 텍스트의 주제와 장르 등 내용은 제외된다.

3. 인터뷰 내용 및 분석

3.1 인터뷰 개관

연구자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교내 여러 장소에서 본교 GSIT 한중과정 중국인 재학생 및 한중과정을 졸업한 본교 박사과정 재학생 총 20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고 1인당 약 40~50분 동안 시나리오에 따른 반구조화 중국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완료한 후에는 엑셀 파일에 전문을 전자(오류 등 3회 확인)하고 학습자별 질문과 응답에 따라 발화를 분류, 코딩한 후 번역하였다.

그림 2
인터뷰 분류 및 번역 작업 화면

ST_Q	ST_A	TT_Q	TT_A
1 2 17	我觉得不完全需要教材, 但也不是完全不需要。像新闻和演讲稿这些材料也可以作为教材, 不用特意去印一本书。	번역 교재의 필요성:	교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아예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뉴스나 연설문 같은 자료도 교재로 쓸 수 있으니 굳이 책 한 권을 인쇄하지 않아도 됩니다.
1 2 18	需要。		(정도) 필요합니다(4)
1 2 19	我感觉我们惯用的教育方式让我们对教材的依赖性较强。如果突然没有教材, 光靠教授讲解, 我们会有些迷茫, 特别是刚入门的时候没有经验, 可能会像无头苍蝇一样不知道方向。因此, 从惯用的教育方式来看, 教材还是有必要的。		(근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육 방식으로 인해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재 없이 교수님의 설명에만 의존하게 되면 막막할 수 있으며, 특히 처음 입문했을 때는 경험이 없어서 머리 없는 파리처럼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 볼 때는 여전히 교재가 필요합니다.
1 2 20	因为现在的上课方式是教授直接给我们现成的材料, 比如新闻稿和演讲稿。		(앞서 왜 출판된 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나요?) 지금 수업 방식은 교수님이 뉴스레터나 연설문 같은 기존 자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학습자들의 학습 배경을 보면 국내 대학(본교) 졸업생이 8명, 중화권 대학 졸업생이 11명(지린외대 3명, 헤이룽장외국어학원 3명, 하얼빈극동공과대학, 루동대학, 광둥남화공상직업대학, 타이완 타이베이간호보건대, 장경과기대, 다예대 각 1명), 기타 해외대학(폴란드 브로츠와프대) 졸업생이 1명이며 한국 체류 기간은 1년~17년 이상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학습자들의 학습 현황을 보면 본교 GSIT 한중과정 1학기차 재학생이 10명, 2학기차 재학생이 4명, 3학기차 재학생이 2명, 본교 GSIT 한중과정 졸업 후 본교 박사과정 재학생이 4명이다. 1학기차의 경우 입학 후 이미 4-5주간의 수업을 통해 전문 통번역 교육과정에 대해 기본적 이해가 있고 수업 및 학습 방식도 어느 정도 적응한 상황이었다.

3.2 학습 경험 분석

우선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 경험에 대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

였다.

-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외국어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교재가 있었습니까?
- 교재는 어떤 형식이었습니까? 출판된 책이었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였나요?
- 선생님이 준비하신 자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종이자료, 음성, 영상 등)
- 수업의 주요 자료로 사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 기타 어떤 자료가 있었습니까?

학습자들의 응답을 종합하면 첫째, 교재의 유무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과거 외국어 수업은 대부분 자국 교원이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1], 부가적으로 교원이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중국에서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1-34): 在国内的话, 是有教材的。我们主要通过老师上课, 在课堂上听讲这种方式来学习。)

둘째, 교재의 매체 유형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과거 외국어 수업 교재는 대부분 출간서적이었다[2]. 교원 준비 자료로는 기출문제 등 유인물, 한국 드라마 등 영상, 음성 등이 있었으나 많지는 않았다.

[2] 대학원 전에는 다 **전통적인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대학 때 외국어 학습용 교재는 「**연세한국어**」였어요. (1-7: 我在上研究生之前用的都是比较传统的教材。我大学时期用的是延世韩国语的教材学习外语。)

다음으로 학습자의 통번역 학습 경험에 대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4) 여기에 제시한 인용문은 전체 인터뷰 중 일부이며 번호는 ‘학기자-학습자 인터뷰 순서’를 뜻한다. 이하 동일.

- 석사과정 입학 전 통번역을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어디서 배웠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학부 수업 ② 대학원 입학 대비 프로그램 ③ 시중에 나온 책 또는 온라인 자료로 독학 ④ 기타

학습자들의 응답을 종합하면 첫째, 대학에서 통번역을 학습한 경우는 크게 통번역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3명)와 외국어 교과목에서 경험한 경우(8명)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중국의 번역 교재를 활용했다고 응답[3]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통번역 자체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3] 대학 때 「**한국어 번역**」이라는 책을 썼는데 수준이 낮았습니다. **간단한 문장만 번역**했죠. 더 전문적인 번역 공부는 (대학원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2-2: 在大学时用过一本叫《韩国语翻译》的书, 但内容很浅, 只翻译简单的句子。更专业的翻译学习是第一次接触。)

둘째, 시중 학원에서 통번역을 학습한 경우는 1명으로 나타났다[4].

[4] 중국에서 증영 통번역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 (**한중 통번역**) 역시 **학원에서 배운 적** 있습니다. (2-3: 在中国, 报了一个中英翻译的补习班。... (韩语翻译) 也有在补习班学过。)

셋째, 실무를 통해 통번역을 학습한 경우 역시 1명으로, 실무 기관의 교원과 자료를 통해 통번역 지식을 익혔다고 밝혔다[5].

[5] 주로 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부 사법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 관련 용어 교육**이었습니다. (5-3: 主要是和我的工作相关, 是一些司法机关提供的法律相关术语培训。)

넷째, 통번역을 독학한 경우는 크게 출간서적으로 학습한 경우(2명)와 전자자료로 학습한 경우(5명)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홈페이지 기출문제로 연습[6]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6] 학원에 가본 적은 없지만, 부산외대 준비를 위해 역대 기출 문제를 혼자 번역하고 독학했습니다. (5-2: 没有参加过补习班, 但我会去釜山外大找一些历年考试题, 自己翻译和自学备考。)

다섯째, 통번역을 전혀 학습한 적이 없는 경우는 3명으로 나타났다[7].

[7] (예전 수업에서도 통번역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나요? 예를 들어 문장을 시험 삼아 통번역해 보는 것도요?) 없었습니다. (1-10: (以前的课上也完全没有涉及翻译的内容吗? 比如句子的翻译尝试?) 都没有。)

이상과 같이 본교 GSIT 중국인 학습자들의 과거 외국어 수업은 대부분 출간서적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집중적인 통번역 교육을 경험한 학습자는 실무 교육을 이수한 1명과 학원 수업을 받은 1명뿐이었다. 전자는 직업 교육이며 후자는 GSIT와 유사한 입시 교육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반면 학부 수업에서 통번역 교육을 경험한 학습자는 11명, 독학으로 GSIT 입시에 대비한 학습자는 7명에 달했으며 통번역 학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도 3명이 존재했다. 학부 수업은 통번역 교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목적 및 강도 등에서 GSIT와 다르며 외국어 교과목에서의 경험은 부가적 활동에 불과하다. 결국 본교 GSIT 중국인 학습자 20명 중 수도권 GSIT의 학습자들과 유사한 선행 학습 경험자는 1명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려면 이상의 학습 배경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3.3 전문 통번역 교재의 필요성

전문 통번역 교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 번역/통역의 전문적인 학습을 위해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 없음 ② 별로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우선 번역에 관한 응답을 종합하면 첫째, 교재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없

다'고 응답한 경우는 2명, '보통이다'는 3명(부정적 1명, 긍정적 2명), '필요하다'는 6명, '매우 필요하다'는 9명으로 나타났다. '별로 필요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번역 교재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습자가 85%에 달한 것이다.

둘째,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판단의 근거로는 내용의 시의성[1], 주도적 학습을 들었고 긍정적 판단의 근거로는 번역의 전문성, 모방 학습, 학습의 체계성[2], 방향성을 들었다.

[1] 내용이 매년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계속 과거 교재를 쓴다면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질 거예요. (3-2: 因为翻译的内容每年都会更新, 如果一直用以前的教材, 可能会跟不上时代的变化。)

[2] 교재가 있으면 공부가 더 체계적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번역 교재는 일반적으로 먼저 기본적인 번역 이론을 설명한 다음 연습을 제공하는데, 교재가 있으면 공부도 복습도 더 편할 것 같습니다. (5-1: 因为有了教材, 学习会更系统。中国的笔译教材通常先讲一些基本的翻译理论, 然后提供一些练习。有教材的话, 无论学习还是复习都会更方便。)

학습자들이 번역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판단의 근거로 내용의 시의성을 지적한 것과 긍정적 판단의 근거로 내용의 전문성을 지적한 것은 GSIT 번역 학습의 목표, 방향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원을 경험한 학습자가 부정적 판단의 근거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적한 것과 전문 번역을 처음 경험하는 학습자가 긍정적 판단의 근거로 모방 학습 즉 전문가의 경험 공유를 지적한 것은 GSIT에 대비한 선행 학습 경험의 유무가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긍정적 판단의 근거 중 학습의 체계성과 방향성은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3]에서 체계성이란 '먼저 기본적인 번역 이론을 설명한 다음 연습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GSIT 수업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다양한 주제나 장르의 텍스트를 이론적 설명 없이 바로 번역하는데 대해 본교 중국인 학습자들은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역에 관한 응답을 종합하면 첫째, 교재의 필요성에 대해 '필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명, '별로 필요없다'는 3명, '보통이다'는 8명(부정적 5명, 긍정적 1명, 부정적/긍정적 2명), '필요하다'는 4명, '매우 필요하다'는 2명으로 나타났다. 통역 교재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습자가 30%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판단의 근거로는 내용의 시의성, 실제성[3], 구어성[4] 및 그로 인한 즉시성을 들었다. 긍정적 판단의 근거로는 모방 학습,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학습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이론, 기법, 고정표현 등을 들었다.

[3] 통역 교재는 실제, 예를 들어 연설, 회의 등 **실제 기록을 교재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서적 말고요. (1-1: 口译教材的话我认为是以实际的, 例如, 讲话、会议等实际记录作为教材会更好一点。就不是系统性的书籍类的。)

[4] 통역은 **듣기 말하기 연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으면 물론 괜찮지만, 교재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5: 因为口译更多是听说方面的练习, 所以我觉得有教材当然可以, 但如果没有教材也可以。)

학습자들이 통역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판단의 근거로 언급한 학습의 방향성, 모방 및 이론 학습은 번역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판단의 근거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번역 교재에 비해 통역 교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거의 1/3에 불과한 것은 내용의 시의성 외에 실제성, 구어성, 즉시성 등 담화 형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행 학습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이지만 졸업생뿐 아니라 재학생, 특히 재학 기간이 두 달이 안 된 1학기 차 학습자들도 통번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필요성을 달리 판단하며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3.4 전문 통번역 교재에 대한 요구

3.4.1 교재의 도입 시기

전문 통번역 교재의 도입 시기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 교재가 필요하다면 언제 번역/통역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GSIT 진학 전 ② GSIT 1~2학기(이하 ‘재학 전반’) ③ GSIT 3~4학기(이하 ‘재학 후반’) ④ 기타

우선 번역에 관한 응답을 종합하면 첫째, 교재가 필요한 시기에 대해 GSIT ‘진학 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명, ‘재학 전반’은 18명으로 나타났다. ‘재학 후반’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나 ‘재학 기간 전체’라고 응답한 경우 1명이 있었으며 그밖에 복수 응답은 2명이었다. ‘재학 전반’이라고 한 학습자가 가장 많지만 그중에도 입학부터 1학기까지의 ‘재학 초기’에 10명이 집중되어 최대의 응답수를 보였다.

둘째, 교재가 ‘진학 전’ 필요한 근거로는 선행 학습 및 입시 대비[1], ‘재학 초기’ 필요한 근거로는 방향 설정, 체계적 학습[2], 이론 학습[2], 학습 입문 등을 들었으며 ‘진학 전반’ 필요한 근거로는 기초 마련을 들었다.

[1] 이런 교재는 번역을 접해본 적이 없고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전공 학생들에게는 교재가 시험 준비 단계에 더 적합할 수 있고 출판물이나 학원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 후속 학습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我觉得这类教材对那些从未接触过翻译、第一次学习翻译的人可能会有一定价值。... 我认为对于我们专业的学生, 教材可能更适合备考阶段, ... 不太适用于后续的学习。)

[2] 교재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대학원 진학 초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계는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운영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3: 我认为最需要教材的时期应该是读研初期, 因为这个阶段需要系统性的学习, 需要理论支持才能掌握操作方法。)

학습자들이 ‘재학 초기’와 ‘재학 전반’에 필요한 근거로 각각 언급한 학습 입문과 기초 마련에서 번역 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를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역에 관한 응답을 종합하면 첫째, 교재가 필요한 시기에 대해 GSIT ‘진학 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명, ‘재학 전반’은 13명, ‘재학 후

반'은 2명으로 나타났다. '재학 기간 전체'라고 응답한 경우는 1명, 이를 포함한 복수 응답은 4명이었으며 그밖에 '취업 전후'라고 응답한 경우도 4명이 있었다. '재학 전반'이라고 한 학습자가 가장 많지만 그중에도 입학부터 1학기까지의 '재학 초기'에 10명이 집중되어 최대의 응답수를 보였다.

둘째, 교재가 '재학 초기' 필요한 근거로는 학습 입문, 틀 설정, 기초 마련, 이론 학습을 들었으며 '재학 전반' 필요한 근거로는 학습 입문[3], 기초 마련을 들었다. '재학 후반' 필요한 근거로는 학습량 확보[4], '취업 전후' 필요한 근거로는 통역 내용의 이해를 들었다. '진학 전' 필요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3] 통역 역시 1~2학기에 교재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 지금처럼 이렇게 교재가 없다면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할 지 모를 것입니다. (1-10: 口译也是在这一、二学期有教材的话会比较好。... 如果像现在这样没有教材的话, 我们会不知道该从哪方面入手学习。)

[4] 통역은 번역보다 일상적인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거죠. 언어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 일상적인 축적이 더 핵심인 거죠. (그래서) 중간이나 후반에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5-2: 我觉得相比笔译, 口译更需要日常的积累, 比如多听多说, 语言环境也很重要, 除了上课的学习外, 日常积累更关键。... 我觉得教材在中期或者后期更需要。)

역시 학습자들이 '재학 초기'와 '재학 전반'에 필요한 근거로 언급한 학습 입문과 기초 마련에서 통역 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에서는 학습에 대한 생소함, 막연함까지 드러나는데, 이는 교재의 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앞서 번역 관련 응답에서는 22개 중 18개가 '재학 초기'를 비롯한 '재학 전반'에 집중된 반면, 통역 관련 응답에서는 '재학 초기'가 다수이긴 하나 '진학 전'과 '취업 전후'가 공동 2위를 차지했으며 '재학 후반' 필요하다는 응답도 등장했다. 그리고 '재학 후반'과 '취업 초' 필요한 근거로 방과 후나 일상에서의 학습을 언급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통역 학습량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심지어 '취업 초'에 필요한 근거로 통역 내용의 이해를 든 것은 통역사가 아닌 학습자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며 학습 자료에 의존하

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3.3 통역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 근거에서 학습자들은 통역의 실제성과 구어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번역에 비해 교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통역 학습에 더 큰 부담을 느끼며 오히려 장기간 학습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일견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인식을 좀 더 다각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4.2 교재의 사용 용도

전문 통번역 교재의 용도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 교재가 필요하다면 어떤 용도의 번역/통역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수업 교재로 사용 ② 수업의 주교재로 사용하고, 교사 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 ③ 수업의 보조 교재로 사용하고, 교사 자료를 주요 자료로 사용 ④ 공동 학습이나 개인 학습 등 자습에 사용 ⑤ 기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교재가 ‘필요없다’고 답변한 학습자 1명을 제외하고 19명이 응답하였다. 우선 번역에 관한 응답을 종합하면 첫째, 교재의 용도에 대해 ‘수업 교재’라고 응답한 경우는 3명, ‘수업의 주교재’는 8명(이 중 1명은 학기 초 주교재, 후 교사자료로 구분[1]), ‘수업의 보조교재’는 6명, ‘자습 교재’는 2명으로 나타났다. ‘주교재’가 최대의 응답수를 보였으며 ‘보조교재’도 그에 근접했다. 즉 수업 중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교재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사의 자료를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둘째, 교재가 ‘수업의 주교재’로 필요한 근거로는 교재의 광범위한 내용, ‘보조교재’로 필요한 근거로는 교사의 전문지식과 수업 중 설명에 대한 보완[2]을 들었다. ‘수업 교재’와 ‘자습 교재’로 필요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 수업할 때 사용합니다. 초기에는 교재 위주로 가르치고 분석하며 후기에는 교수의 실제 번역자료 위주로 사용합니다. (1-1: 上课时候使

用, 初期时候以教材为主去进行教学、分析, 后期以教授的实际翻译材料为主。)

[2] 선생님의 설명은 더 유연해서 교재 내용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의 전문지식**은 우리보다 많으므로 교수가 학습을 지도하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런 후 **교재 내용으로 보완**하면 학습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 因为教师讲解会更灵活, 能针对教材内容进行引导. 教授的专业知识比我们多, 由他来引导学习会更有效, 再辅以教材内容, 这样学习效果会更好。)

학습자들이 ‘주교재’와 ‘보조교재’로 필요한 근거 중 정보나 지식을 언급한 것은 수업에서 교재 또는 교사에게 정보/지식 전달을 기대하는 전통적 교육관을 드러낸다. 그러나 출간서적이 전문 번역에 충분할 만큼의 내용을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GSIT에서 정보/지식 습득의 주체는 줄곧 학습자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정보/지식 습득의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역에 관한 응답을 종합하면 첫째, 교재의 용도에 대해 ‘수업 교재’라고 응답한 경우는 2명, ‘수업의 주교재’는 3명, ‘수업의 보조 교재’는 8명, ‘자습 교재’는 9명으로 나타났으며 복수 응답은 3명이었다. ‘자습 교재’가 최대의 응답수를 보였으며 ‘보조 교재’도 그에 근접했다. 즉 수업 외에 사용하거나 수업에서는 교재가 교사를 뒷받침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둘째, 교재가 ‘수업의 보조교재’로 필요한 근거로는 실습 중심 수업[3]에 따른 이해 보완을 들었으며 ‘자습 교재’로 필요한 근거로는 이론 지식[4], 학습량 확보, 다양한 지식 등을 들었다. ‘수업 교재’와 ‘주교재’로 필요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3] 시작할 때 이론 지식을 실제 연습에 녹여 넣어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연습 위주로 하고 **교재는 보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5-3: 我觉得在开始的时候, 把理论知识融入到实际练习中去运用比较好. ... 我认为应该以练习为主, 教材为辅。)

[4] 통역도 **수업 후에 보는 책**입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실용성이 강한 지식을 전수해 주시고 수업 후에 전문적인 **이론 지식**을 보면 학습자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1-3: 口译也是课后看的图书. 我觉得上课

时老师会传授实用性较强的知识, 课后再看一些专业的理论知识, 可能会更容易吸收。)

학습자들이 ‘보조교재’와 ‘자습교재’로 필요한 근거로 언급한 실제와 이론은 각각 수업과 교재를 전제로 한다. 통역 수업은 실제 구어 중심이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며 문자 중심의 이론 지식을 담은 교재는 수업 외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3.4.1에서 지적한 모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3.3에서 통역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낮았던 것은 출간서적 형식의 ‘수업 교재’ 또는 ‘주교재’를 가리키며 출간서적이라고도 ‘보조교재’나 ‘자습교재’로서는 여전히, 더 장기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재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의뿐만 아니라 자습까지 포함해 분석해야 한다고 한 진실로와 원은하(2021, p. 560)의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3.4.3 교재의 발행 매체

전문 통번역 교재의 발행 매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 교재가 필요하다면 어떤 매체의 번역/통역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출간서적 ② 전자문서 (한글, office, pdf 등) ③ 멀티미디어(인터넷강의, 유튜브 포함) ④ 온라인시스템 (LMS, Notion 등 템플릿, 앱 등) ⑤ 기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교재가 ‘필요없다’고 답변한 학습자 1명을 제외하고 19명이 응답하였다. 우선 번역에 관한 응답을 종합하면 첫째, 교재의 발행 매체에 대해 ‘출간서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2명, ‘전자문서’는 7명, ‘멀티미디어’는 2명, ‘온라인시스템’은 3명으로 나타났으며 복수 응답은 5명이었다. ‘출간서적’이 최대의 응답수를 보였으며 복수 응답에서도 중심이 되었다.

둘째, ‘출간서적’ 교재가 필요한 근거로는 편의성[1], 소장 가치를 들었으

며 ‘전자문서’가 필요한 근거로는 편의성, 효율성[2]을 들었다. ‘멀티미디어’가 필요한 근거로는 (인쇄매체와 결합되었을 때의) 효과성, ‘온라인시스템’이 필요한 근거로는 선호도, 편의성을 들었다.

[1] 저는 **종이 교재를 더 선호**합니다. 지금은 페이퍼리스 콘텐츠가 많은데, 예를 들면 동영상이나 영상자료나 PDF 파일을 다운받아 공부하지만 개인적으로 페이퍼리스의 방해를 받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퍼리스 자료라도 수업 중에 출력해서 다시 보고 종이 사용이 **좀 더 편**합니다. (1-4: 我更偏向于纸质教材。虽然现在无纸化的内容很多, 比如视频、影像资料或是PDF文件下载后学习, 但我个人会受到无纸化的干扰, 也觉得不太舒服。所以即使是无纸化的材料, 我上课时也会打印出来再看一遍, 纸质的使用更方便一些。)

[2] 읽고 번역하기 **편하다**는 점에서 텍스트쪽입니다. **전자책이나 전자파일 형태**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전자파일은 컴퓨터에서 바로 읽거나 쓸 수 있고 종이책처럼 손으로 베껴 쓰지 않아도 되므로 **효율이 더 높**습니다. (1-8: 我更倾向于文章类的, 方便我阅读和翻译, 可能电子书或电子文档形式更合适。电子档方便直接在电脑上阅读、写作, 像纸质书需要手动摘抄, 效率更高。)

학습자들이 ‘출간서적’과 ‘전자문서’ 즉 문자매체가 필요한 근거로 언급한 편의성은 공통적이지만 이유는 상반된다. 그러나 최근 GSIT의 수업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대부분 ‘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시스템’ 중에서도 LMS 방식인데 비해 ‘출간서적’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역에 관한 응답을 종합하면 첫째, 교재의 발행 매체에 대해 ‘출간서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명, ‘전자문서’는 6명, ‘멀티미디어’는 9명, ‘온라인시스템’은 4명으로 나타났으며 복수 응답은 6명이었다. ‘멀티미디어’가 최대의 응답수를 보였으나 복수 응답은 ‘출간서적’과 ‘전자문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와 조합하기를 희망했다.

둘째, ‘출간서적’ 교재가 필요한 근거로는 연관성, 정보량, 선호도[3], ‘멀티미디어’가 필요한 근거로는 구어성[4], ‘온라인시스템’이 필요한 근거로는 편의성 즉 교정 기능을 들었다. ‘전자문서’가 필요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

다.

[3] 번역이든 통역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출판된 책을 선호**합니다. 지금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주시는 것은 전부 파일인데 제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합니다. **컴퓨터나 태블릿에서 이 파일들을 보면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종이는 더 쉽게 뒤적거릴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보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종이로 된 출판 도서를 선호합니다. (1-1: 不论是笔译还是口译, 对我个人而言我都比较倾向于出版的图书。现在上课老师给的都是文档, 为了方便翻阅, 我都会把这些文档打印出来。在电脑或者平板上看这些文档有时候会觉得没有连贯性, 纸质更方便于随手翻阅。知识就是要多看多学, 所以我更倾向于纸质的出版图书。)

[4] 통역은 **멀티미디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은 통역 연습에 더 적합할 것 같아요. **통역은 주로 듣고 말하는 훈련이라 상대적으로 적게 쓰기 때문에 동영상 교재가 더 적합**합니다. (1-2: 口译的话我觉得多媒体形式更好, 比如YouTube上的视频更适合练习口译。因为口译主要是听和说的训练, 写的相对较少, 所以用视频教材更合适。)

학습자들이 ‘출간서적’이 필요한 근거로 언급한 연관성은 체계성의 또 다른 측면이다. 좀 더 넓은 논리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출간서적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를 지적인 학습자는 통역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여 [3]의 응답과 일견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3.4.2에서 살펴본 통역 교재의 용도에 대한 응답을 함께 고려한다면 납득할 만하다.

3.4.4 교재의 발행 방식

전문 통번역 교재의 발행 방식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 교재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의 번역/통역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단행본 ② 정기간행물(이하 ‘정간물’) ③ 단행본(이론서)와 정간물

(워크북)의 결합 ④ 기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교재가 ‘필요없다’고 답변한 학습자 1명을 제외하고 19명이 응답하였으며 복수 응답은 없었다. 그중 4명은 통번역 교재의 발행 방식을 구분한 반면, 나머지 15명은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학습자들의 응답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 교재의 발행 방식에 대해 ‘정간물’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명, ‘단행본과 정간물의 결합’은 18명으로 나타났다. 통역 교재의 발행 방식에 대해 ‘정간물’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명, ‘단행본과 정간물의 결합’은 14명으로 나타났다. 번역과 통역 모두 ‘단행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단행본과 정간물의 결합’이 최대의 응답수를 보였다. 다만 번역은 ‘결합’ 유형이 좀 더 지배적인 반면, 통역은 ‘정간물’로 족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정간물’이라고 응답한 학습자 중 4명은 해당 유형의 통역 교재가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근거로 시의성[1], 실용성을 들었다. ‘단행본과 정간물의 결합’이라고 응답한 학습자 중 4명은 해당 유형의 번역 교재가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근거로 체계성과 시의성[2], 방대한 학습량을 들었다. ‘단행본과 정간물의 결합’이라고 응답한 나머지 학습자 14명은 통번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근거로 체계성(이론)과 시의성(연습), 정보량과 시의성을 들었다.

[1] **시사적인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영상이나 텍스트는 좀 더 유연해서 학습 내용이 더 **새롭기 때문에** ②유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8: 按时更新时事内容的视频或文章, 更灵活一些, 让学习内容更加新鲜。我觉得第二种会更好一些。)

[2] 번역은 ③유형을 더 선호합니다. **학습 체계에 따른 책**이 있으면 그걸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간물은 최신 예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니 정간물로 최신 내용의 번역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1-1: 笔译的话我更倾向于第三种。有一个学习系统的一个书, 可以根据书去进行练习。同时期刊可以更新最新的范文, 可以根据期刊去练习翻译最新的内容。)

학습자들이 ‘단행본과 정간물의 결합’ 방식이 필요한 근거로 든 것은 이미 언급된 출간서적과 전자매체들의 장점을 조합한 것이다. 한편 방대한 학습량을 언급한 것은 전문 번역 학습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통역의 경우 부담감과 학습량 문제를 교재의 사용 기간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여기서는 통역과 번역 모두 발행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진실로와 곽은주(2016)의 교재 모델에 대해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취지 또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3.4.5 텍스트의 작성 시기

전문 통번역 교재에 수록되는 텍스트의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 교재가 필요하다면 어떤 시기의 번역/통역 텍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최근 6개월 이내 ② 과거 3년 이내 ③ 과거 10년 이내 ④ 과거 100년 이내 ⑤ 기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교재가 ‘필요없다’고 답변한 학습자 1명을 제외하고 19명이 응답하였다. 우선 번역에 관한 응답을 종합하면 첫째, 교재의 텍스트 작성 시기에 대해 ‘6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는 5명, ‘3년 이내’는 5명, ‘10년 이내’는 5명, ‘100년 이내’는 6명으로 나타났으며 복수 응답은 2명이었다. 응답 분포가 상당히 고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재에 ‘6개월 이내’와 ‘3년 이내’의 텍스트가 필요한 근거로는 시의성[1]을 언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내용, 문체, 어휘(신조어)의 시의성이 거론되었다. ‘100년 이내’의 경우 시기별 차이 또는 장르별 차이[2]를 들었으며 ‘10년 이내’의 텍스트가 필요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 최근 1~3년 내에 출판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 교재가 최근 몇 년 동안 출판된 경우 문체가 현재 표현 방식에 더 부합합니다. (5-1: 我认为是最近1~3年内出版的比较好。翻译教材如果是近几年出版的, 文体会更符合当前的表达方式。)

[2] 더 넓게, 더 많이 알수록 **문학번역**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백 년 정도**가 괜찮습니다. 회의문서 번역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실용적인 번역**인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출판된 것일수록 좋은데, 예를 들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출판된 것이 가장 좋습니다. (1-1: 一百年左右的都可以, 因为知识储备越广, 了解的越多, 对文学笔译越有帮助。如果是比较简单一些的实用性笔译, 例如会议文件的翻译之类, 越近出版的越好, 比如说六个月至一年内出版的最好。)

다음으로 통역에 관한 응답을 종합하면 첫째, 교재의 텍스트 작성 시기에 대해 ‘6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는 7명, ‘3년 이내’는 6명, ‘10년 이내’는 2명, ‘100년 이내’는 4명으로 나타났으며 복수 응답은 없었다. 다만 연구자가 제시한 선택지 중 ‘6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 ‘3년 이내’를 1년 이내(2명), ‘100년 이내’를 10~15년 이내라고 답하는 등 번역에 비해 좀 더 최근 텍스트를 요구하였다.

둘째, 교재에 ‘6개월 이내’와 ‘3년 이내’의 텍스트가 필요한 근거로는 모두 언어의 가변성으로 인한 시의성[3~4]을 들었으며 ‘100년 이내’의 텍스트가 필요한 근거로는 언어의 불변성을 들며 시기별 차이로 인해 현재와 과거의 텍스트가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0년 이내’의 텍스트가 필요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3] 통역 교재는 최근일수록 좋습니다. 통역은 **시사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6개월~1년 내의 것**일수록 좋습니다. (1-1: 口译教材的话越新越好。因为口译涉及时事类的比较多, 所以六个月至一年内, 越新的越好。)

[4] 마찬가지로 통역 교재도 최근 몇 년 것, 아마도 **최근 3년 내에 출판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번역 교재는 시효성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교재는 지나간 표현을 포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언어의 변화가 훨씬 빠릅니다**. (5-1: 同样, 口译教材也要选择近几年的, 大概近三年内出版的较好。翻译教材是有效性的, 太老的教材可能包含一些过时的表达方式, 而现在语言变化较快。)

이처럼 학습자들은 번역과 통역 교재 모두 ‘3년 이내’의 텍스트가 시의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번역과 통역 교재의 텍스트가 반드시 시의

성을 띠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나타났다. 번역 교재의 텍스트는 장르에 따라 시기를 다양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반면, 통역 교재의 텍스트는 최근 3년 이내가 다수를 접하여 시의성이 더 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3.4.6 텍스트의 전환 방향

전문 통번역 교재에 수록되는 텍스트의 전환 방향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 교재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의 번역/통역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모국어에서 외국어 방향 (이하 ‘AB’) ② 외국어에서 모국어 방향 (이하 ‘BA’) ③ 기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통번역에 대한 응답의 양상이 유사하므로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 교재의 텍스트 전환 방향에 대해 ‘AB’ 방향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명, ‘BA’ 방향은 1명, ‘AB&BA’ 방향은 15명으로 최대 응답수를 보였다. 통역 교재의 텍스트 전환 방향에 대해 ‘AB’ 방향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명, ‘BA’ 방향은 1명, ‘AB&AB’ 방향은 12명으로 역시 최대 응답수를 보였다.

둘째, 번역 교재에 ‘AB’ 방향 텍스트가 필요한 근거로는 외국어 지식 부족, 언어 구조 차이, ‘BA’ 방향이 필요한 근거로는 모국어 지식 부족을 들었으며 ‘AB&AB’ 방향이 필요한 근거로는 언어 능력 부족[1], 모국어의 유연성/다양성을 들었다. 통역 교재에 ‘AB’ 방향의 텍스트가 필요한 근거로는 외국어 (문법/어휘/표현) 지식 부족, 취업 수요, ‘BA’ 방향이 필요한 근거로는 모국어 지식 부족을 들었으며, ‘BA&AB’ 방향이 필요한 근거로는 언어 지식 균형[2], 모국어 지식 부족을 들었다.

- (1) 양방향입니다. 모국어가 중국어지만 번역할 때 중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대학원 과정에 들어온 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양방향 번역을 통해 내 중국어 실력뿐 아니라 한국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3: 互译。因为自从上了研究生课程, 虽然我的母语是汉语, 但在翻译过程中发现对汉语的掌握也不是很到位。互译可以更好地提高我的汉语水平, 同时也能提升我的韩语能力。)

[2] **통역도 (두 방향)** 모두 필요합니다. 중한 또는 한중 한 방향만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통번역은 양방향을 **모두 마스터해야** 합니다. (1-8: 口译也都需要, 因为中翻韩或韩翻中, 单方面比较好是不行的, 翻译还是要双向都掌握好。)

이처럼 학습자들은 번역과 통역 교재 모두 양방향 전환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외국어뿐 아니라 모국어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각 방향이 필요한 근거로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도착어(target text) 구사를 위한 언어 지식이었다. 따라서 언어 지식은 전문 통번역 교수학습에서도 중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계가 없는 열린 집합(open set)이라는 점에서 역시 학습자의 주도성이 요구된다.

4. 결론

이상에서 본고는 본교 GSIT 한중전공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통번역 교재에 관한 요구 조사 결과를 정리, 분석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 대부분의 과거 외국어 학습은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GSIT를 대비한 선행 학습 경험은 거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수도권 GSIT 입학생들과는 다른 배경으로, 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의 유사 과정에서도 널리 채택하고 있는 교재를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통번역 교재는 이론-실습 체계와 시의성, 실제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에 본고는 진실로와 곽은주(2016)의 교재 모델을 채택하되 GSIT에 맞는 구체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교재 자체에 초점을 두어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통번역 교재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자들은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번역 교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85%에 달했는데, 이들은 교재가 이론과 전문가의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를 희망했다. 반면 통역 교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30%에 불과했다. 이들은 통역이 구어성, 즉시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수업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실제 현안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반면 통번역 교재가 필요한 시기에 대해 학습자들은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번역과 통역 교재 모두 GSIT 1~2학기, 특히 입학 직후에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초기에 체계적 틀을 잡고 방향을 설정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 심화 학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번역에 비해 통역은 진학 전부터 취업 초까지 교재를 요구하는 기간이 더 길었다.

이상 응답의 차이는 통번역의 담화 형식 차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교재의 개념은 광의부터 협의까지 다양하나 주로 출간서적을 의미하는데, 번역은 주로 문어 텍스트, 통역은 주로 구어 텍스트와 관련됨에 따라 수업 중 출간서적 형식의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담화 형식의 차이는 통번역 교재의 발행 매체에 대한 응답과도 연결되었다. 학습자들은 번역의 경우 문자 매체를 주로 선택한 반면, 통역의 경우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문자 매체를 결합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단행본 교재와 정기간행 워크북을 결합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통번역 교재의 용도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의 선택은 달랐다. 번역 교재는 수업의 주교재 또는 보조교재로서 기본 이론과 예문을 숙지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반면 통역 수업은 교수자 또는 시의성 있는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교재로 보조하거나 수업 외에 활용하길 희망했다.

시의성은 전문 통번역 교수학습의 핵심이면서도 그동안 교재의 연구 개발을 어렵게 한 결정적 이유였는데, 학습자들은 3년 이내 자료가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번역 교재는 100년 이내까지 장르별로 고르게 배치하길 희망한 반면, 통역 교재는 더 최신 이슈를 반영하기를 요구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본교 GSIT 한중전공의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학습 입문과 기초 마련 등을 위해 우선 1학기용으로 개발하며 진실로와 박은주(2016)의 제안에 따라 본 교재와 워크북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이론과 연습을 제공하는 단행본 출간서적의 장점을 살리는 한편, 시의성, 실제성 부족이라는 단점을 번역은 출간서적 또는 전자문서라는 문자 매체, 통역은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

기간행 워크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번역 워크북은 다양한 시기의 장르별 A언어 및 B언어 텍스트로 구성하는 반면, 통역 워크북은 3년 이내의 실제적 A언어 및 B언어 텍스트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성한 번역 교재는 수업에서 교재 또는 주교재로 사용하는 반면, 통역 교재는 수업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습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상의 분석 과정에서 본교 GSIT 한중전공 중국인 학습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교과과정을 위한 선행 학습을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담화 형식 차이에 따른 통번역 학습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또한 통번역 교재의 텍스트는 양방향 전환 연습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며 도착어 중 모국어 지식 부족을 여러 번 언급한 것은 통번역 학습을 위한 심리적 준비를 보여준다. 이들은 전문 통번역 학습을 처음 접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상당한 학습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교수자나 교재의 지식이나 정보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통번역 교수학습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은 통번역 교수자가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AI시대에 교재가 반드시 출간서적일 필요는 없으나 이를 기대하는 것을 퇴행으로만 보기는 어렵다(서정원과 이호준, 2025).

본고는 전문 통번역 교재에 대한 본교 GSIT 한중전공의 중국인 학습자들의 요구를 확인하였으나 선행 학습 경험이 부족한 것은 한국인 학습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균형 있게 학습을 지원하고 통번역 교재에 대한 요구를 좀 더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국적과 언어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실제 교재 개발이 가능하려면 본 교재에 포함할 이론으로 과연 어떤 것들을 담아야 하는가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와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번역과 통역은 여러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역, 과목, 장르, 주제 등 텍스트 내용에 관한 세밀한 논의와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편폭의 제약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김선아. (2020). 학부 한중통역 교재 분석. 통번역교육연구, 18(4), 5-25.
- 김아영, 김미경, 손평, 유효초, 하나은. (2021). 통번역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방향 탐구. 부산외대 교수학습개발원 연구결과보고서.
- 김중희. (2010). 학부과정 한일통번역 수업설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 김진수, 최유현, 김수경. (2008). 공과 대학 교수들의 공학교육 연수실태와 교육요구 분석. 공학교육연구, 11(2), 50~64.
- 배두분. (1999). 영어교재론개관: 이론과 개발. 한국문화사.
- 서정원, 이호준. (2025. 3. 11). 디지털교과서 선택한 국가들 다시 ‘종이책’으로 속속 전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1261135>
- 왕금금, 김아영. (2023). 중·한 전문 통번역 교육과정 분석. 통번역교육연구, 21(4), 5~32.
- 정이봉. (2018). 중국 대학 학부생을 위한 한중·중한 번역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 정철자. (2015). 의료통역 교재내용 구성을 위한 의료담화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6(2), 271-292.
- 주정. (2015).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용 한중 번역 교재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진실로, 곽은주. (2016). 학부 번역수업 유형별 수업 교재 사용 현황 분석 및 번역교재 모델 제안. 통번역교육연구, 14(3), 67-91.
- 진실로, 원은하. (2021). 영한번역 학습교재의 출간 동향과 목차 분석을 통한 콘텐츠 경향 연구. 인문사회 21, 12(4), 557-568.
- 최문선. (2013). 통역 교육에서 출발텍스트 선정과 난이도 고려에 대한 소고. 통역과 번역, 15(2), 249-278.
- 함채원. (2016). 전문번역교육 수업 모델 설계와 적용에 관한 실험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Needs analysis for developing Korean-Chines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extbooks: Chinese students at BUFS's GSIT

Ah-young Kim (First/corresponding author, omni24@bufs.ac.kr)

Chinese-Korean Department, GSI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 Korea

Xing-zhuo Wu

Department of Korean Translati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and requirements for professional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I) teaching materials among Chinese students at a Korean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GSIT). Unlike their counterparts at Seoul-based GSITs, many of these students lack prior formal training, making the provision of structured educational resources essential. Drawing on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found distinct differences in perceived needs: 85% of respondents indicated a demand for translation textbooks, while only 30% expressed a similar need for interpreting textbooks. This gap reflects the contrasting modalities of the two practices—translation as a written process and interpreting as an oral one. Participants emphasized that materials are especially needed during the early stages of study. The preferred format includes a foundational textbook paired with an online, regularly updated workbook featuring bidirectional texts. For translation, printed materials were favored as primary or supplementary resources; for interpreting, multimedia resources with current content were preferred for classroom use, with printed materials serving mainly for supplementary or self-study purpos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tailored T&I teaching materials that addres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learners and the differing demand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Keywords: GSIT; professional T&I learning; textbook development; Chinese learners; needs analysis

키워드: 통번역대학원, 전문 통번역 학습, 교재 개발, 중국인 학습자, 요구조사

김아영(1저자/교신저자, <https://orcid.org/0000-0003-0163-0576>)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전공 교수
omni24@bufs.ac.kr

오성탁(공동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번역학과 박사 수료
wuxingzhuo16@gmail.com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15일